

한국 디자인학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

Analysis of Korean Design Study Tendency

주저자 : 김종덕 (Kim, jong-deok)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

이 논문은 2004학년도 홍익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I.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II. 연구모델에 대한 기초조사

1. 선행연구 고찰
2. 국내 디자인학계 저널 현황
3. 디자인학 연구논문의 개념
4. 디자인의 계층구조도
5. 디자인학 연구방법론

III. 디자인학 조사 및 분석

1. 연구의 개념
2. 논문 표집방법
3. 조사기간 및 시대구분
4. 조사방법
5. 조사내용

IV. 결론

1. 결과 및 시사점
2. 한계 및 연구방향

참고문헌

(要約)

국내에서 디자인 제 영역에 걸친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학문적 탐구는 1979년 한국디자인학회 창립 이후 80년부터 시작된 디자인학 연구를 필두로 한다, 이때부터 학술교류를 통한 사회적 공헌 및 학문적 연구는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24년간 이루어진 디자인학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을 위해 국내 대표 학회지인 '디자인학연구'와 '기초조형학연구'를 각 1호부터 최근호까지의 논문을 총 2065편 수집하였다. 논문분석을 통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국내 디자인학 연구의 현황을 조명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주 목적이다.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적 기법으로는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그리고 유목의 관찰빈도와 기대빈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스퀘어(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학술적 교류를 통한 디자인학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연구논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전체적인 분포현황은 디자인기반연구, 디자인응용연구, 디자인기초연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론에 있어서는 실증연구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디자인학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위해 커뮤니케이션학의 사회조사방법론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이다.

(Abstract)

Theoretical and academic research of Korean design study started from 1979, the year of establishment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From that point, social contribution and academic research of design study through the academic exchange has been brought up.

I collected 2,065 theses from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and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and Art' to analyze the design study tendency during last 24 year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the Design study tendency and the direction of the design study with the empirical analysis.

The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for the data analysis, and the χ^2 has been used to verif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observed frequency and expected frequency of items.

The Original articles of design study has been increased steadily because of the growing importance of the design study in the society. The analysis shows Design Foundation Study, Design Application Study and Design Basic Study are the most frequently studied area in the Korean Design Study. Design Study utilize the research methodology of social science to get the reasonable and objective result. Because of this, the number of empirical research method has been increased in the research methodology in Korean Design Study.

(Keyword)

Design Study tendency, Design Research Methodology.

1. 서론

1. 연구목적

디자인학 연구는 타 학문들에 비해 역사가 매우 짧다. 한국디자인학회가 설립되던 1979년 당시에는 디자인이 아직 학문적으로 뿌리내리기 이전이었으므로 디자인계가 일체감 있게 학술발표 활동을 하거나 학술지를 발간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박영순(박영순, 2002) 전임디자인학회장이 디자인학연구 발간사에서 밝혔듯이, 사회적 인식의 부족함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지한 학문적 탐구를 통해 꾸준히 학술지가 발간되었고, 이는 미술의 한 부분으로만 여겨졌던 디자인으로부터 오늘날의 한국의 디자인학이 학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여겨진다.¹⁾

그동안 디자인 분야에서는 여러 교수와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통하여 디자인이 학문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으며, 이제는 디자인 분야도 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 등과 동등한 학문분야로 성장하였다.

이 연구는 그동안 우리나라 디자인분야 학계에 발표된 디자인 논문들의 현황을 알아봄으로써 현재까지 이루어진 디자인의 학문적 영역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 이 연구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디자인학 연구의 동향분석을 통하여 학문으로서의 디자인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디자인 연구의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 향후 디자인학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디자인학문으로서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를 실제적으로 조사해서 분석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디자인분야에서 선행연구로 참고할 수 있었던 논문은 저널논문 1편과 발표논문 1편이 조사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뜻에서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알아본다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전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학 학문에 근거하여 사회조사방법론이 활용되었다. 이 연구설계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 또는 분석단위(units of analysis)는 사회적 산물(social artifacts)²⁾으로서 논문이 된다.

디자인의 제 영역에 관한 논문을 포괄적으로 개제하는 한국디자인학회의 논문집인 '디자인학연구'에 게재된 논문들과 한국기초조형학회의 '기초조형학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을 분석단위로 디자인 학문연구의 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난 24년간 이루어진 디자인학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을 위해 한국디자인학회의 저널논문 928편, 발표대회논문 886편, 한국기초조형학회의 저널논문 251편, 총 2,065편의 논문을 수집하였다. 이 중 비교연구를 위해서는 디자인학연구의 저널논문 928편과 기초조형학연구의 저널논문 251편, 총 1,179편의 논문을

1) 박영순, 디자인학연구 발간사, 한국디자인학회, 2002
 2) 사회적 존재에 의해 만들어진 산출물이나 행위의 결과를 의미한다. 책, 그림, 자동차, 건물, 노래 신문사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을 분석하였다. 연구유형은 24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디자인학 현상의 변화를 조사하는 연구로서 시계열 분석(time series analysis)으로 진행된 종단적(longitudinal research)³⁾ 연구이다.

표본의 기술에 있어 국내 2개 학회의 논문으로 한정 하였음에도 수집논문의 수가 방대하여 양적연구(quantitative research)⁴⁾와 질적연구(qualitative research)를 병행하기로 하였다.

양적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분석 가능한 수치자료를 산출함으로써, 측정기술이나 표집방법, 통계조사 등이 중요하였다. 따라서 계량적 자료들을 기술통계와 추리통계를 사용하여 평가하고, 질적 자료들은 주제와 범주로 구분하여 주관적으로 평가하였다.

연구설계를 위해 논문을 주제별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였으며, 대분류는 3가지 모델로, 중분류는 13가지 모델로, 소분류는 51가지 모델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디자인분류체계는 한국디자인학회에서 이사진과 편집위원회의 실무회의를 통해 도출시킨 분류표를 기준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살펴보면 연구분야(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연구방법, 연도별 추세분석 등을 들 수가 있다.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적 기법으로는 SPSS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그리고 유목의 관찰빈도와 기대빈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스퀘어(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II. 연구모델에 대한 기초조사

1. 선행연구 고찰

현재까지 발표된 디자인학 논문의 동향분석은 주로 연구자에 의한 주관적인 것으로 '디자인학연구'의 저널논문 1편과 발표논문 1편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수연·이건표 교수의 『"디자인학 연구"를 통해 살펴본 디자인 논문의 경향에 대한 연구』⁵⁾에서는 1989년부터 1998년도까지 게재된 266편의 논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1] 디자인의 계층구조

디자인영역	시간디자인		
	산업디자인		
	공예디자인		
	환경디자인		
	컴퓨터응용디자인		
	디자인이론	디자인 순수 이론	
		디자인 속성별 이론	
	응용이론	디자인방법론	
		디자인 매니지먼트	
		사용자중심 디자인	
		감성공학	

3) 종단적(통시적)연구: 시계열 분석이라고도 하며 중요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큰 효과가 있으나,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의 소비를 감수해야 하며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다.

4) 양적연구(quantitative research)란 사상(事象)을 수치화하여 측정하는 연구로 그 방법 및 논리는 경험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5) 이수연, 이진표, 디자인학 연구를 통해 살펴본 디자인 논문의 경향에 대한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999, p.38-39

이 연구는 디자인 연구논문에서 주로 다루어져온 연구주체들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하여 디자인을 구성하고 있는 학문적 요소를 파악하여 디자인의 학문적 구조를 살폈으며, 디자인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살핌으로써 미약한 연구주체 분야를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각 논문에서 추출된 3개 이내의 주제어를 유사한 속성을 바탕으로 그룹화 하는 KJ법을 활용하여 디자인영역과 디자인이론으로 나누는 계층구조도로 밝혀냈다.(표 1참조)

이 연구는 비록 표집대상이 '디자인학연구' 266편의 논문에 한정되는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의 한계를 가지나, 국내에서 디자인이 학문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이후 20여년만에 처음으로 시도된 디자인 연구의 경향분석이라는 점에서 선행연구로서는 큰 의의를 가진다.

이경미·백진경·유연식 교수의 『디자인 논문에 대한 통계적 기법 활용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⁶⁾에서는 지금까지 디자인 연구논문에서 사용된 통계적 기법의 종류, 그리고 그것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분석하였다. 1980년부터 2002년 8월까지 발간된 '디자인학연구' 논문집에 실린 615편의 논문들 중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194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자 했던 연구이다.

근래의 디자인 연구활동 중 논문연구, 즉 학문적인 디자인 연구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디자인 연구의 객관적(과학적) 자료추출을 위해서 인접 학문에서 사용되는 통계적 기법들의 사용이 점차 늘어나리라고 예상하는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 디자인 연구논문에서 사용된 통계적 기법의 종류, 그리고 그것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의 유사 연구활동에 참고가 되리라고 판단된다.⁷⁾

2. 국내 디자인학계 저널 현황

국내 디자인학계는 크게 한국디자인학회와 한국기초조형학회가 있고, 디자인전공이 세분화된 학회로 한국패키지학회, 한국영상디자인학회, 한국실내디자인학회가 있다.

한국디자인학회는 연간 4권의 '디자인학연구'라는 저널논문집과 2권의 학술발표대회 논문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이다. 학회가 1979년 설립되어 1980년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 1호의 발간을 시작으로 2004년 5월 통권 제 56호까지 발행되었다.

이 중 제8호, 제12호, 제15호, 제17호, 제19호, 제22호(한일디자인심포지움), 제24호, 제26호, 제29호, 제32호, 제35호, 제38호, 제41호, 제46호, 제49호는 발표논문집이다.

한국기초조형학회는 2000년 '기초조형학연구' 제 1호가 발간되면서 현재까지 7권이 발행되었고 학진 등재후보지이다.

한국실내디자인학회는 1992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논문집이 44호까지 발행되었으며, 학진 등재후보지이다.

한국영상디자인학회는 1995년 창립되어 2003년 5권 2호까지 발행되었고 학진 등재후보지이다.

한국패키지디자인학회는 1993년 설립되었으며 1994년 제 1호

의 발간을 시작으로 2003년 제 13호까지 발행되었다. 1996년까지는 연 1회 발간되었으며 이후 2003년까지 연 2회씩 발간되다가 13호까지 발간 후 현재 휴간중이다. 학진 등재후보 예정지이다.

3. 디자인학 연구논문의 개념

논문에서는 동일한 테마에 대해 다른 학자들이 말하지 않았던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한다. 어떤 고전을 새로이 읽고 해석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상이한 텍스트 안에 흩어져 있는 사상을 체계화하고 완성시켜주는 이전 연구들의 재구성 및 재해석 역시 과학적인 연구결과로 간주된다. 연구자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말함으로써, 이론적으로는 같은 분야의 다른 학자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작업을 제시해야 한다.⁸⁾

대상을 정의한다는 것은 우리가 제시하거나 또는 우리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이 제시했던 몇몇 규칙을 기반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조건을 정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⁹⁾

디자인 연구논문이란 다른 디자인 작업에 재활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연적 혹은 인공적 세계로부터 추출되어 마련된 지식체계를 말한다. 디자인 연구논문은 단순히 이론의 정립만을 위한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활동에 적용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디자인 연구논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 (1) 다원성: 디자인 연구논문은 디자인 학문적 위치의 특성상 디자인 분야는 물론 마케팅, 엔지니어링 등 매우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 (2) 가변성: 디자인은 역사가 오래된 여타의 학문과 같이 지식체계가 확정적이고 완만한 변화를 갖고 있지 않고 패러다임의 변화주기가 비교적 짧으며 가변적이다.
- (3) 시각성: 디자인은 여타의 학문에 비해 시각적 언어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정성적이다.¹⁰⁾

4. 디자인의 계층구조도

다른 학문에 비해 그 역사가 짧은 디자인학문은 학술적으로 완전하게 체계가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연구를 위한 디자인 논문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2004년 현재 한국디자인학회가 규정하고 있는 디자인 계층구조도를 활용하였다.

1999년 이수연·이건표 교수의 『"디자인학 연구"를 통해 살펴본 디자인 논문의 경향에 대한 연구』에서 KJ법을 활용하여 디자인영역과 디자인이론으로 나누었던 11단계의 디자인 계층구조도와 비교하면 디자인 분야가 51단계(기타포함 61단계)로 양적인 증가를 하였으며, 이는 디자인학 연구영역에 많은 발전과 다양성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수연·이건표의 선행연구가 이루어지던 1999년도까지만 해도 디자인영역으로서 컴퓨터응용디자인에 포괄되던 영역들이 디지털디자인이라는 영역 안에 뉴미디어 언어로 자리잡아가고

6) 이경미·백진경·유연식, 디자인 논문에 대한 통계적 기법 활용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2003, p.99-110

7) 앞글, P.101

8) 움베르토 에코, 움베르토 에코의 논문 잘 쓰는 방법, 주식회사 열린책들, 2003, p.25

9) 앞글, p.58

10) 이수연, 이진표, 디자인학 연구를 통해 살펴본 디자인 논문의 경향에 대한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999, p.38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디지털디자인은 94년부터 연구영역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표 2] 디자인의 계층구조도

A. 디자인 기초 연구	디자인문화	01 디자인철학
		02 디자인미학
		03 디자인심리(디자인인지/인간행동분석/인간감성)
		04 디자인사회학
		05 디자인문화
	디자인이론	01 디자인기호의미론(의미전달체계/메타포/구문)
		02 디자인논리
		03 디자인교육(디자인능력개발/재교육/사이버교육)
		04 디자인법규, 제도
		05 디자인역사(디자인사조/미래디자인)
B. 디자인 기반 연구	디자인조형	01 디자인/ 조형원리
		02 디자인 재료
		03 디자인 색채
	디자인공학	01 기능/기기구조(스마트디자인/제품신뢰성/안전)
		02 인간공학(사용성/휴먼인터랙션/참여적디자인)
		03 생산재료/공정
		04 디자인 실험분석(측정/실험, 시뮬레이션)
	디자인경영	01 디자인 경영관리(디자인전략/트렌드)
		02 디자인마케팅(마케팅전략)
		03 디자인정책
		04 디자인 기획/관리(디자인프로세스)
		05 디자인기준
		06 디자인품질
	디지털 디자인	01 컴퓨터그래픽/비주얼라이제이션
		02 콘텐츠디자인(게임/애니메이션/웹/CDE타이틀/캐릭터)
		03 인터랙션디자인(정보디자인/인터페이스)
		04 디자인 DB(웹기반디자인)
	디자인 방법론	01 디자인분석(조사/분석, 기술지원)
		02 디자인종합(협동적디자인)
		03 디자인평가(참여적디자인)
디자인이슈	01 유니버설디자인	
	02 지속가능디자인	
	03 생태적디자인	
C. 디자인 응용 연구	산업디자인	01 가정용제품디자인
		02 산업용제품디자인(시스템디자인)
		03 환경/공공기기디자인
		04 운송기기디자인
	시각정보 디자인	01 시각정보처리(브랜드/아이덴티티)
		02 출판/편집디자인(타이포그래피)
		03 광고디자인
		04 포장디자인
		05 영상디자인
	환경디자인	01 디스플레이/전시디자인
		02 실내/외 디자인
		03 공공/도시환경 디자인(환경조경)
	공예	01 목공예
		02 금속공예
		03 도자공예
패션/섬유 디자인	01 패션디자인	
	02 텍스타일디자인/섬유디자인	

5. 디자인학 연구방법론

논문을 쓴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의미한다. 즉, (1) 구체적인 테마를 찾아내는 것, (2) 그 테마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 (3) 그러한 자료들을 정리하는 것, (4) 수집된 자료들을 토대로 자신이 직접 테마를 재검토하는 것, (5) 이전의 모든 고찰들에 대해 유기적인 형식을 부여하는 것, (6) 논문을 읽는 사람이 자기가 의도하는 바를 이해하도록 해주고, 또한 필요하다면 그 동일한 자료들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테

마를 나름대로 다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논문을 작성한다는 것은 자신의 개념을 체계화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방법론적 작업의 경험이며, 원칙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대상을 구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¹⁾

본 연구에서 디자인학 연구방법은 각 논문별 및 학회지별로 저마다의 차이가 있었지만 크게 인문연구, 실증연구, 사례연구로 분류하였다.

한국디자인학회에서 정의하고 있는 3가지 유형의 연구방법은 연구논문(Original Articles), 응용논문(Research Report), 기술논문(Review Articles)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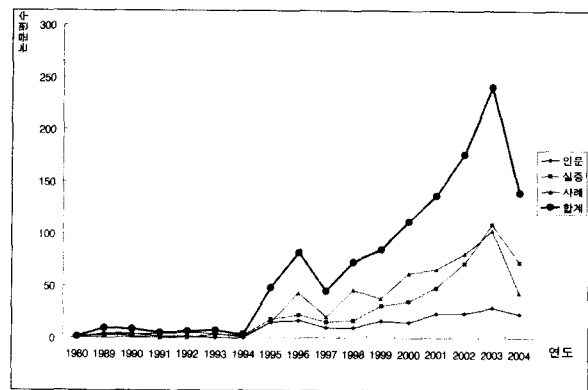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방법을 차배근¹²⁾은 그의 저서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연구방법은 크게 3가지 유형 즉, 문헌적 연구방법(documentary studies), 실증적 연구방법(empirical studies), 사례연구 방법(case studies)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런 3가지 연구방법은 커뮤니케이션의 연구주제에 따라 각기 알맞은 방법으로 적용되며 상호보완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디자인학연구방법론에 있어서의 현재의 분류방식은 약간 모호한 감이 없지 않으며 이런 연유로 논문을 제출하는 디자인학자들조차도 자신의 논문을 어느 분류에 놓아야하는지를 모른 채 대부분이 '연구논문'의 항목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서 분석을 위한 정확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보여 본 학회의 연구방법론에 따른 분류를 택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 연구방법론에 따른 분류를 택하였다. 디자인학 연구에 있어서도 기존의 논문 연구방법론들과의 상호보완을 통하여 일부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본 연구에서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있어서의 연구방법론에 따른 분류 방식을 택하였으며 그에 따른 분석을 행한바, 인문연구는 조사기간 전체적으로 평이한 수준을 보였으나 95년부터 95년까지는 사례연구가 많았다가 2003년을 기점으로 실증연구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실증연구와 사례연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디자인 연구가 실용적 학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학문연구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디자인 연구방법의 연도별 연구현황



11) 움베르토 에코, 움베르토 에코의 논문 잘 쓰는 방법, 주식회사 열린책들, 2003, p.30

12) 차배근, 커뮤니케이션연구방법, 서울:세영사, 1979, p.46

[표 3] 디자인 연구방법의 연도별 연구현황 (단위: 편)

계재 연도	80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인문(192편, 16.3%)	0	4	4	1	1	0	0	15	17	10	10	16	15	23	24	29	23
실증(449편, 38.1%)	0	3	1	0	0	3	2	16	22	15	17	31	35	48	72	103	73
사례(538편, 45.6%)	1	2	3	4	5	4	1	15	43	20	46	38	62	66	81	103	44
합계(1179편, 100%)	1	9	8	5	6	7	3	48	82	45	73	65	112	137	177	241	140

III. 디자인학 조사 및 분석

1. 연구의 개념

이 연구에서 정의하는 연구의 개념은 사회조사방법론에서 말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계량적인 방법론을 동원한 것을 말한다.

표집대상이 된 논문이 연구목적, 연구방법, 조사내용, 연구결과 등으로 나누어지고, 연구방법에서는 인문연구, 실증연구, 사례연구로 분류하였다.

2. 논문표집방법

조사대상에 포함할 사례를 결정함에 있어 이상적으로는 국내 디자인 관련학회의 모든 사례를 연구문제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센서스(census) 방식이 좋지만, 그렇게 하는데 드는 비용과 노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논문을 디자인학이라는 큰 범주에서 “디자인학 연구”와 “기초조형학 연구”로 한정하였다.

연구대상 표집에 있어 디자인학회 저널논문 928편, 발표대회 논문 886편, 기초조형학연구 251편, 총 2,065편의 논문을 수집하여 1차적으로 저널논문과 발표대회 논문을 합산한 수치로 통계를 실행했을 때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관계로, 저널논문으로만 한정하여 2차적 통계를 실행하였다. 이 중 비교연구를 위해 디자인학연구의 저널논문 928편과 기초조형학연구의 저널논문 251편, 총 1,179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표 4] 표집대상 논문 분야별 빈도분석

연구구분	분야	빈도	비율
디자인기초연구 (348편, 29.5%)	디자인문학	133	11.3
	디자인이론	215	18.2
	디자인조형	65	5.5
디자인기반연구 (442편, 37.5%)	디자인공학	51	4.3
	디자인경영	68	5.8
	디지털디자인	200	17.0
	디자인방법론	44	3.7
	디자인이슈	14	1.2
디자인응용연구 (389편, 33.0%)	산업디자인	70	5.9
	시각정보디자인	167	14.2
	환경디자인	95	8.1
	공예	21	1.8
패션/섬유디자인	36	3.1	
합계	1,179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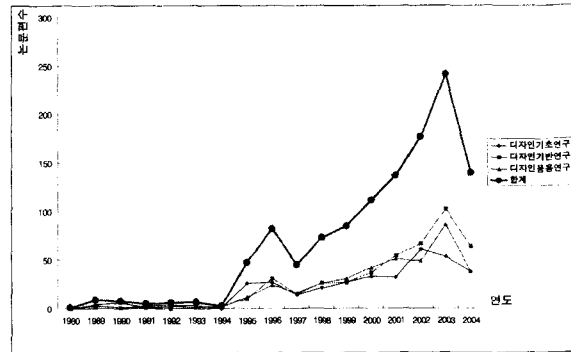
3. 조사기간 및 시대구분

본 연구에서 조사기간은 1979년 한국디자인학회가 창립하여 80년 “디자인학 연구” 제1호가 처음으로 발간된 것을 기점으로 상술된 논문지를 전부 망라하였으며, 2004년 5월호인 제

56호까지 조사하였다. 중간에 논문발행이 휴간되었던 기간이 있었기에 시대구분은 17단계로 분류된다.

[그림 1]을 보면 95년까지는 디자인기초연구가 많았으나 96년부터 비슷한 양적증가를 보이다가 2000년을 기점으로 디자인기반연구가 현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0년을 기점으로 논문의 수적인 증가세도 두드러진다.

[그림 1] 대분류 주제에 따른 연도별 연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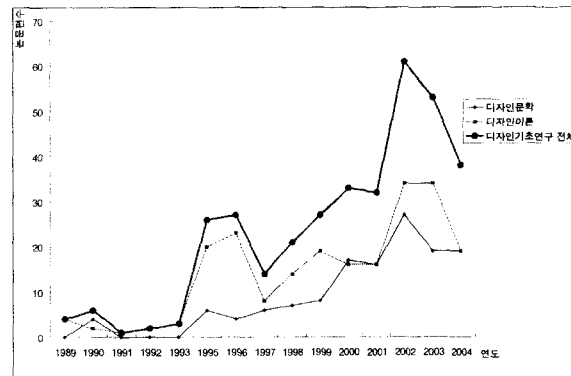


[표 5] 대분류 주제에 따른 연도별 연구현황 (단위: 편)

계재 연도	80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디자인기초연구 (348편, 29.5%)	0	4	6	1	2	3	0	26	27	14	21	27	33	32	61	53	38
디자인기반연구 (442편, 37.5%)	1	3	1	1	0	1	2	10	31	15	26	27	37	54	67	102	64
디자인응용연구 (389편, 33.0%)	0	2	1	3	4	3	1	12	24	16	26	31	42	51	49	86	38
합계 (1,179편, 100%)	1	9	8	5	6	7	3	48	82	45	71	85	112	137	177	241	140

(1) 디자인기초연구

[그림 3] 디자인 기초연구의 연도별 연구현황



[표 6] 디자인 기초연구의 연도별 연구현황 (단위: 편)

계재 연도	80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디자인기초연구	디자인문학 (133편, 38.2%)	0	4	0	0	0	6	4	6	7	8	17	16	27	19	19	19
	디자인이론 (215편, 61.8%)	4	2	1	2	3	20	23	14	19	16	16	34	34	19	34	19
	합계 (348편, 100%)	4	6	1	2	3	26	27	14	21	27	33	32	61	53	38	38

디자인기초연구는 디자인문학과 디자인이론으로 나누었으며, 90년도와 2000년도에 디자인문학이 잠시 앞선 시기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디자인이론연구가 양적으로 월등하다.

(2) 디자인기반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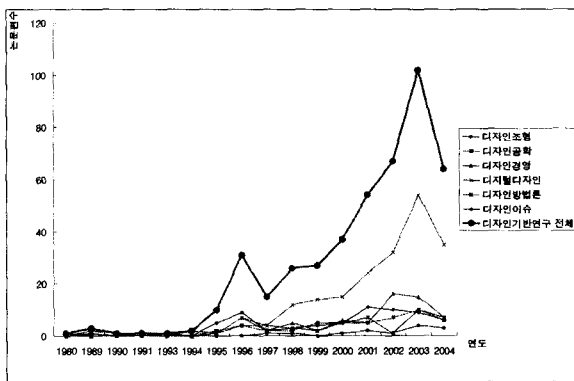
디자인기반연구는 6개의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1996년부터 디지털디자인이 디자인학 연구분야로 새롭게 등장하여 해가 지날수록 급증하다가 2003년도엔 파격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이는 2000년 초부터 우리사회에 이슈를 던지고 있는 디지털의 영향이 빠르게 파급된 효과로 분석된다.

디자인경영 역시 2000년을 기점으로 증가하였는데, 디자인의 산업적인 측면의 강조와 경제발전기여라는 사회적 요구의 반영으로 보인다.

나머지 디자인공학, 디자인방법론, 디자인이슈 등은 비슷한 증가를 보였다.

[그림 4] 디자인 기반연구의 연도별 연구현황



[표 7] 디자인 기반연구의 연도별 연구현황 (단위: 편)

계재 연도	80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디자인조형 (65편, 14.7%)	0	1	0	0	0	0	5	9	2	3	4	5	11	10	9	6	6
디자인공학 (51편, 11.5%)	0	2	1	0	0	0	2	4	2	2	5	5	5	7	10	6	6
디자인경영 (68편, 15.4%)	1	0	0	0	1	0	1	7	2	5	2	6	5	16	15	7	7
디지털디자인 (200편, 45.2%)	0	0	0	0	0	2	1	7	4	12	14	15	24	32	54	35	35
디자인방법론 (44편, 10.0%)	0	0	0	0	0	0	1	4	4	3	2	5	7	1	10	7	7
디자인이슈 (14편, 3.2%)	0	0	0	1	0	0	0	0	1	1	0	1	2	1	4	3	3
합계 (442편, 100%)	1	3	1	1	1	2	10	31	15	26	27	37	54	67	106	64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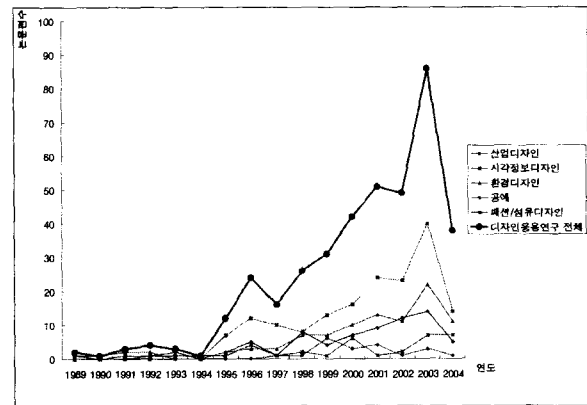
(3) 디자인응용연구

디자인응용연구는 5개의 디자인전공분야로 분류하였으며, 94년을 기점으로 시각디자인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이후 디자인 응용연구분야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2.9%).

2000년을 기점으로 시각디자인분야가 역시 급증하는데 시각디자인이 디지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다음으로 환경디자인(24.4%), 산업디자인(18.0%), 패션/섬

유디자인(9.3%), 공예(5.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 디자인 응용연구의 연도별 연구현황



[표 8] 디자인 응용연구의 연도별 연구현황 (단위: 편, %)

계재 연도	89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산업디자인(70편, 18.0%)	0	0	0	1	2	0	2	5	1	8	4	7	9	12	14	5	
시각정보디자인(167편, 42.9%)	0	0	0	0	0	0	7	12	10	8	13	16	24	23	40	14	14
환경디자인(95편, 24.4%)	1	1	2	2	0	0	2	3	3	7	7	10	13	11	22	11	11
공예(21편, 5.4%)	1	0	0	0	0	0	0	1	1	1	6	3	4	1	3	1	1
패션/섬유디자인(36편, 9.3%)	0	0	1	1	1	1	1	4	1	2	1	6	1	2	7	7	7
합계(389편, 100%)	2	1	3	4	3	1	12	24	16	26	31	42	51	48	88	38	38

4. 조사방법

연구문제의 특성에 따라 방법론을 결정하는 일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졌다. 연구문제의 구성은 동향분석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참고문헌의 검토는 디자인학연구 외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유사 연구들을 참고하였다.

모집단의 정의는 1980년부터 2004년 5월까지 발행된 디자인학 연구 및 기초조형학연구의 저널논문이다.

표본선정은 2065편의 논문 내용 전반에 대한 센서스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분석단위는 디자인 연구논문이 된다.

체계적으로 수량화할 수 있는 원칙마련을 위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계층화하였으며, 내용코딩이 명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코딩 후 자료 분석은 통계프로그램과 연구자가 논의하여가며 연구문제에서 구체화된 현상의 여러 측면을 관찰하고 변인간 관계의 본질에 접근했다.

5. 조사내용

세부적인 자료분석 및 분석결과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디자인분야 소분류에 따른 연구분야는 총 51개로 이를 전부 연도별로 그 흐름을 알아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전체 사례수의 약 50%에 달하는 상위 11개의 연구 분야만 빈도분석하기로 하였다. 디자인의 세부분류에 따른 총 51개의 전공분야 중에서 상위 10개가 전체 연구 사례수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1위에서 3위까지가 디지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분야이다. 그러나 디자인품질, 지속가능디자인, 기능/기구/구조분야는 연구 사례가 단 한 편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전공 상위 10개의 연구 분야들을 중분류 차원으로 재구성해보면, 디지털디자인이 4, 디자인문학 2, 시각정보디자인 2, 디자인이론 1, 환경디자인이 1의 순이다. 이를 다시 퍼센티지로 나열해보면, 디지털디자인(17%), 시각정보디자인(9%), 디자인문학(6.9%), 디자인이론(4.2%), 환경디자인(4.2%)의 순으로 나타난다.

디자인 대분류 차원에서는, 상위 10개의 연구분야 중 4개는 디자인기반연구에, 3개는 디자인기초연구에, 3개는 디자인응용연구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이를 다시 퍼센티지로 나열해보면, 디자인기반연구(17%), 디자인응용연구(13.2%), 디자인기초연구(11.1%) 순이다. 특이한 점은 단 한 편의 연구사례도 없었던 세 분야가 모두 디자인기반연구라는 점이다.

[표 9] 소분류에 따른 연구 현황 (단위 : 편, %)

순위	소분류 연구분야	해당 중분류	해당 대분류	사례수	퍼센트	누적 퍼센트
1	컨텐츠디자인	디지털디자인	디자인기반	60	5.1	14.6
2	인터랙션디자인	디지털디자인	디자인기반	59	5.0	19.6
3	시각정보처리	시각정보 디자인	디자인응용	54	4.6	24.2
4	출판/편집디자인	시각정보 디자인	디자인응용	52	4.4	28.6
5	디자인이론/의미론	디자인이론	디자인기초	50	4.2	32.8
	공공/도시환경 디자인	환경디자인	디자인응용	50	4.2	37.1
7	디자인심리	디자인문학	디자인기초	43	3.6	40.7
	디자인DB	디지털디자인	디자인기반	43	3.6	44.4
9	디자인문화	디자인문학	디자인기초	39	3.3	47.7
	컴퓨터그래픽/비주얼라이제이션	디지털디자인	디자인기반	39	3.3	51.0
·	·	·	·	·	·	·
·	·	·	·	·	·	·
50	디자인품질	디자인경영	디자인기반	0	0	100
	기능기구/구조	디자인공학	디자인기반	0	0	100
	지속가능디자인	디자인이슈	디자인기반	0	0	100

5-1. 학회지별 연구분야 비교분석

5-1-1. 학회지별 연구분야(대분류)의 차이

'디자인학연구'와 '기초조형학연구' 두 학회지에 따른 대분류에 의한 연구분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두 학회 모두 디자인기반연구(디자인학연구: 37.9%, 기초조형학연구: 35.9%), 디자인응용연구(디자인학연구: 33.2%, 기초조형학연구: 32.3%), 디자인기초연구(디자인학연구: 28.9%, 기초조형학연구: 31.9%) 순으로 그 비율이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표 10] 학회지별 연구분야(대분류)의 차이 (단위 : 편)

		대분류		
		디자인기초연구	디자인기반연구	디자인응용연구
학회지	디자인학 연구	268 (28.9%)	352 (37.9%)	308 (33.2%)
	기초조형학 연구	80 (31.9%)	90 (35.9%)	81 (32.3%)
$x^2=.877, df=2, p=.645$				

5-1-2. 학회지별 연구분야(중분류)의 차이

(1) 디자인기초연구

두 학회지에 따른 디자인기초연구의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두 학회 모두 디자인이론(디자인학연구: 60.4%, 기초조형학연구: 66.3%)이 디자인문학(디자인학연구: 39.6%, 기초조형학연구: 33.8%)보다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분포도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표 11] 학회지별 디자인기초연구의 차이 (단위 : 편)

학회지	디자인학연구	디자인기초연구	
		디자인문학	디자인이론
	기초조형학연구	106(39.6%)	162(60.4%)
	기초조형학연구	27(33.8%)	53(66.3%)
$x^2=.878, df=1, p=.349$			

(2) 디자인기반연구

두 학회지별 디자인기반연구의 차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디자인학연구'가 '기초조형학연구'보다 디자인공학(13.9% 대 2.2%)과 디자인방법론(11.0% 대 5.6%) 분야에 더 많은 논문을 게재하였으나, 디자인조형(14.4% 대 15.7%), 디지털디자인(43.1% 대 53.9%), 디자인경영(14.7% 대 18.0%) 그리고 디자인이슈(2.8% 대 4.5%)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논문게재의 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학회지별 디자인기반연구의 차이 (단위 : 편)

학회지	디자인학 연구	디자인기반연구					
		디자인 조형	디자인 공학	디자인 경영	디지털 디자인	디자인 방법론	디자인 이슈
	기초조형학 연구	51 (14.4%)	49 (13.9%)	52 (14.7%)	152 (43.1%)	39 (11.0%)	10 (2.8%)
	기초조형학 연구	14 (15.7%)	2 (2.2%)	16 (18.0%)	48 (53.9%)	5 (5.6%)	4 (4.5%)
$x^2=13.486, df=5, p=.019$							

(3) 디자인응용연구

학회지 비교에 따른 디자인응용연구의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학회 모두 대체적으로 시각정보디자인, 환경디자인, 산업디자인, 패션/섬유디자인, 공예의 순으로 논문빈도수가 나타났다. 분포도 역시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표 13] 학회지별 디자인응용연구의 차이 (단위 : 편)

학회지	디자인학 연구	디자인응용연구				
		산업디자인 3	시각정보 디자인 1	환경디자인 2	공예 5	패션/섬유 디자인 4
	기초조형학 연구	58 (18.9%)	123 (40.1%)	83 (27.0%)	16 (5.2%)	27 (8.8%)
	기초조형학 연구	12 (14.6%)	44 (53.7%)	12 (14.6%)	5 (6.1%)	9 (11.0%)
$x^2=7.940, df=4, p=.094$						

5-2. 학회지별 연구방법의 차이

각 학회지에 따른 연구방법의 차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두 학회 모두 사례연구(45.4%, 46.6%)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실증연구(38.0%, 38.2%)였으며, 인문연구(16.6%, 15.1%)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학회지별 연구방법의 차이 (단위: 편)

		연구방법		
		인문	실증	사례
학회지	디자인학연구	154(16.6%)	353(38.0%)	421(45.4%)
	기초조형학연구	38(15.1%)	96(38.2%)	117(46.6%)
$x^2=327, df=2, p=.849$				

5-3. 연구분야별 연구방법의 차이

5-3-1. 대분류에 따른 연구분야별 연구방법의 차이

대분류에 따른 연구분야별 연구방법의 차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디자인기초연구는 디자인기반연구나 디자인응용보다 인문(32.5% : 10.2% : 8.7%)이 높게 나타났다.

디자인기반연구는 디자인기초연구나 디자인응용보다 실증방법(50.7% : 27.6% : 33.2%)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디자인응용연구는 디자인기초연구나 디자인기반연구보다 사례분석방법(58.1% : 39.9% : 39.1%)이 높게 나타났다.

[표 15] 대분류에 따른 연구분야별 연구방법의 차이 (단위: 편)

		연구방법		
		인문	실증	사례
대분류	디자인기초연구	113(32.5%)	96(27.6%)	139(39.9%)
	디자인기반연구	45(10.2%)	224(50.7%)	173(39.1%)
	디자인응용연구	34(8.7%)	129(33.2%)	226(58.1%)
$x^2=130.449, df=4, p=.000$				

5-3-2. 중분류에 따른 연구분야별 연구방법의 차이

(1) 디자인기초연구

디자인기초연구분야의 연구방법의 경우, 인문의 사용비율이 디자인이론(60편, 27.9%)에서보다 디자인문학(53편, 39.8%)에서 더 높고, 사례의 경우는 디자인문학(47편, 35.3%)보다 디자인이론(63편, 29.3%)이 높았지만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16] 디자인기초연구 분야별 연구방법의 차이 (단위: 편)

		연구방법		
		인문	실증	사례
디자인기초연구	디자인문학	53(39.8%)	33(24.8%)	47(35.3%)
	디자인이론	60(27.9%)	63(29.3%)	92(42.8%)
$x^2=5.352, df=2, p=.069$				

(2) 디자인기반연구

디자인기반연구의 중분류에 따른 연구 분야별 연구방법의 차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문에서는 디자인조형(9편, 13.8%)과 디자인이슈(3편, 21.4%)가 디자인공학(1편, 2.0%)과 디자인경영(5편, 7.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은 디자인공학(40편, 78.4%)과 디자인방법론(30편, 68.2%)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례는 디지털디자인(89편, 44.5%)과 디자인이슈(9편, 64.3%)에서 다른 분야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다.

[표 17] 디자인기반연구 분야별 연구방법의 차이 (단위: 편)

		연구방법		
		인문	실증	사례
디자인기반연구	디자인조형	9(13.8%)	28(43.1%)	28(43.1%)
	디자인공학	1(2.0%)	40(78.4%)	10(19.6%)
	디자인경영	5(7.4%)	35(51.5%)	28(41.2%)
	디지털디자인	23(11.5%)	88(44.0%)	89(44.5%)
	디자인방법론	5(11.4%)	30(68.2%)	9(20.5%)
	디자인이슈	3(21.4%)	2(14.3%)	9(64.3%)
$x^2=36.351, df=10, p=.000$				

(3) 디자인응용연구

디자인응용연구의 중분류에 따른 연구분야별 연구방법의 차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디자인응용연구에서는 모든 연구분야가 공통적으로 사례연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실증을, 인문을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었다.

[표 18] 디자인응용연구 분야별 연구방법의 차이 (단위: 편)

		연구방법		
		인문	실증	사례
디자인응용연구	산업디자인	1(1.4%)	27(38.6%)	42(60.0%)
	시각정보디자인	17(10.2%)	51(30.5%)	99(59.3%)
	환경디자인	6(6.3%)	37(38.9%)	52(54.7%)
	공예	4(19.0%)	5(23.8%)	12(57.1%)
	패션/섬유디자인	5(13.9%)	10(27.8%)	21(58.3%)
$x^2=12.237, df=8, p=.141$				

IV. 결 론

1. 결과 및 시사점

한국 디자인학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에서 각 전공별 연구의 성향이 90년대 후반 2000년을 기점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공통적인 변화로는 37.5% 빈도를 나타낸 디자인기반연구에서, 특히 디지털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디자인기반연구 내의 6개분야중에서 디지털디자인은 17% 빈도로 그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다. 그 다음 디자인경영 5.8%, 디자인조형 5.5% 순이었다.

디자인의 학문적 영역이 차지하는 위치는 인문학이나 공학 같은 주변학문과의 연계를 그 특징으로 한다. 과거 인문학의 비

중이 높았으나 점차 사회조사방법론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디자인통계학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디자인기초연구에서는 특히 디자인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디지털미디어라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디자인교육의 정체성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적 요구이다. 미디어의 변화로부터 촉발된 디자인교육부문의 변화는 현실적인 교육정책으로 소화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과거의 문화적 산물들이 현재에 와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기인한다.

한국디자인의 정체성모색이라는 명제 아래 디자인학 연구에서 교육에 대한 성찰이 향후 지속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디자인 창조활동이 그 사회의 문화를 담아내고 디자이너를 문화생산자로서 인식하기 시작한 이 시대에 디자인학 연구에는 한 개인이 아니라 문화전체가 개입한다. 지금 디자인연구의 화두는 예술과 테크놀로지와의 연계이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차이에 의해 학문연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논문의 체계를 다듬어 가는 것은 향후 디자인 학자들이 보다 더 권위 있는 논문을 쓸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리라 기대한다.

논문의 기회를 활용하여 디자인학 연구의 긍정적이고 진보적인 의미를 되찾을 수 있다. 즉 디자인학 연구를 단순한 지식의 집합이 아닌 경험의 비판적 정교화로서, 또한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며, 커뮤니케이션 소통기법에 따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의 습득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2. 한계 및 연구방향

지난 24년간 이루어진 디자인학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을 위해 총 2,065편의 논문을 수집하여 분석함에 있어 시계열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효과가 있었으나, 논문자료가 방대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 조사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의 소비를 감수해야 했으며 비용 또한 마찬가지이다.

조사기간의 단축을 위해 조사원의 수를 더 늘릴 수는 있었겠으나 논문을 분류하는 작업에 있어 어느 정도 조사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판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3명의 조사원에 만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조사원 개인의 자의성이 어느 정도 개입될 수 있었음을 이 연구의 한계요인으로 밝힌다.

다른 한편, 이 연구의 통계분석에 있어 2004년을 기점으로 전반적인 수치가 낮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2004년의 경우 연간 발행되는 4권의 논문 중 상반기 2권의 논문만 집계되었기 때문이며 올 하반기 나머지 2권의 논문이 참가될 경우 전체적인 수치는 더 높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가 디자인학의 연구방법론을 설명하기엔 부족함이 있지만 각종 논문들로 표현되는 제반 디자인학문의 기본 요건들을 제시한다고 하겠다.

이 연구 역시 마찬가지이겠지만 현재까지 디자인학 연구와 관련한 소수의 논문은 국내 논문에 한정된 한계가 있다.

이에 향후 후속 연구로서 해외의 디자인논문의 경향과 국내 디자인논문의 경향을 비교분석하여 디자인학 연구가 국가별로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를 비교할 수 있는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이수연, 이견표, 디자인학 연구를 통해 살펴본 디자인 논문의 경향에 대한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999
- 이경미·백진경·유연식, 디자인 논문에 대한 통계적 기법 활용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디자인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디자인학연구 2003 05 vol.16 no.2
- 김동진·김영주, 한국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동향, 한국신문학회, 1983
- 김영석, 사회조사방법론, 나남신서, 2003,
- 움베르토 에코, 움베르토 에코의 논문 잘 쓰는 방법, 주식회사 열린책들, 2003
- 강상현, 한국 인문학 연구동향에 대한 비판적 평가, 사회비평 제 10호 1993
- 차배근, 커뮤니케이션연구방법, 서울:세영사, 1979